



통권 71호

#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7. 9. 10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제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과거청진국민위, 월간발 사회평론길

주관: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우가족협의회 때: 1997. 9. 6. 장소: 서대문독립공원



〈사진 이희영 님〉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희생된 321분의 열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및 기념주간이 열렸다. 기념주간 동안에는 명동성당에서 명동입구까지 조성한 거리 문화제(9. 1.), 동대문 운동장 앞에서 전태일 거리 문화제(9. 2.), 잠실교통회관 앞 택시노동열사 거리 선포식(9. 3.)과 인천 경동산업 앞 김종하, 강현중, 최웅(경동산업 노동자로 89년 회사측의 부당 징계 항의농성

증 분신) 거리 선포식(9. 4.)이 있었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회의(9. 2.)가 카톨릭회관에서 열려 열사들의 넋을 기렸다. 9월 6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는 321분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가운데 제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가 열려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사진은 9월 6일 독립공원에서 열린 범국민 추모제.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대선 후보들은 떳떳한 정책으로 맞서라

집권당 대선후보의 '추석전 사면'론이 청와대 심야회동에서 제동이 걸렸다하여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회동은 사사로운 사면론을 '임기전 사면 방침'으로 공식화 시켰을 뿐이다. 문제는 언제 사면하느냐가 아니었다. '정략적 사면' 그 자체에 있는 것이었다. 이보다 앞서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표 모으기 사면론을 들고 나온 것은 단순한 선거풍토의 부도덕, 파렴치를 넘는 역사와 정의, 법 치주의를 거역하는 행위로 국민적 분노와 정치일반에 대한 혐오마저 낳게 했었다. 정당 또는 단체의 점검과 경선을 거친 떳떳한 후보라면 역사와 민족과 사회가 요구하는 대승적 과제들, 그리고 당의 강령정신과 정책 등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지 '색깔론', '사면론' 따위 상투적이고 몰가치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선거 문화의 후진성을 말하기전 정치 지도자로서의 품위와 양식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정치는 어떤 곡예의 실험무대가 아니다. 지난 시기의 '3당 합당'이나 '색깔론', '의도적인 보수행각', '사면론', '내각제 연대론(정계개편)' 따위는 정권을 쥐기 위한 수단인지는 몰라도 정당한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한다해도 민주정당으로서의 정통성, 도덕성을 잃은 것은 물론 정책실현에서도 태생적 한계로 끝날 수 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아왔다. 정치는 또한 속류들이 말하는 힘에 의한 지배형태로서 그 힘(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도 아니다. 사람의 존귀함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다. 바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문화와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일이다.

얼마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정권의 우선과제는 경제발전, 민주적 정치개혁, 교육개혁 남북통일 순으로 되었고 이어서 부정부패 척결, 삶의 질 향상, 환경 문제 해결, 지역갈등 해소와 균등 발전, 부의 균등한 분배 등 경제정의 실현을 들었고 맨 마지막으로 '인권신장 등 사회민주화 실현'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조사의 방법이나 조사내용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른바 문민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그리고 그 권력에 길들여진 잘못된 언론이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의심치 않는다. 바로 현 정권 들어서 3,700여명(1997. 8. 1. 현재) 양심수를 잡아 들였으나 단 한사람도 양심수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이번 광복 52돌을 맞은 구속자 석방에서도 일반형사사건 무기수, 장기수 등 360명이 가석방되었으나 양심수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이 그 예이고 엄혹했던 유신정권에서도 단 한사람의 학생

간 갑자기 퍼뜩 큰 소리였어요. 그 땅  
한 편이 그동안 그만둔 경주한 것도 아  
직나는 거예요. 대학 들어왔으면 낭만도  
중학교 생활도 엄마 아파해요. 누가 그걸  
로르나요?'

이 잡혀가도 크게 보도했었으나 오늘의 언론은 민주적 절차로 결성된 학생단체를  
공안당국이 일방적으로 '이적'으로 규정, 수백명이 잡혀가고 쫓기고 있어도, 9월  
개강 첫날부터 경찰이 학교에 불법난입해 학생을 잡아가고 있어도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그래서인지 언론사와 방송사가 함께하는 대선후보들의 TV토론에서도 정치개  
혁, 금융개혁 아니면 '리더쉽', 교육, 경제, 정보화 등과 후보의 신변잡기에 패널리  
스트들의 질문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인권, 양심수, 악법문제, 민족문제 따  
위는 묻지도 대답도 없었다. TV토론 뿐 아니라 기자회견, 연설, 논평 등에서도 보  
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있는 그 허위의 가면을 벗겨보라. 40년을 갇혀  
있는 우용각 노인을 비롯하여 13년째 구금당해 있는 구미유학생 사건, 8년째 묶여  
살고 있는 서경원 의원, 작가 황석영씨, 노동시인 박노해 씨, 77세의 노구로 갇혀  
있는 범민련의 강희남 목사, 안재구, 박창희 교수, 진관스님, 애국적인 청년, 노동  
자, 학생 등 900여 명의 갇혀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는 5, 6공 정권하에  
서 여러사건 조작으로 갇혀있는 양심수가 적지 않다. 있는 사실을 없다고 규정함  
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없도록 조처를 해야 할 뿐이다. 양심수가 없기  
위해서는 먼저 모두 석방하고 다시 잡아들이는 악법을 없애고 건전한 의견을 과  
감히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후보들에게 양심수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를 요구한다.  
첫째, '전노사면'은 선거전략 대상이 아니다. 범죄와 국가 형벌권과의 관계이다.  
'사면론'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정치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사람답게 사는 문제이다. 민주주의 실현과 인  
권보장은 무엇보다 앞서 할 일이다. 부당하게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문제에 분명  
한 해결책을 밝혀야 한다.

셋째, 자주적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이 선택할 가장 큰 가치이다. 분단 반세기를  
극복하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맞는 통일로 가는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 법 이전에 사람을 알아야 한다

편집부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제 이름이 두 갠데, 호적에 올리기만 한 이름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아들 덕에 별걸 다 얘기하게 되네요. 귀임, 이귀임이고 부를 때는 연순이라고 했지요”

몹시 수줍어하며 이름을 일러주신다. 구속된 학생들의 가족모임이고 민가협의 핵심(?) 조직인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구학협) 부회장 이연순 님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있는 백주선군의 어머니이다. 민가협 어머니들 가운데서는 젊은 나이라 언제나 앞장서고 계신다. 주선이네 고향은 멀리 전남 장흥이다. 어머니 역시 ‘장흥 사람’으로 주선이 아버지 백춘웅 님과 중매결혼으로 맺어졌다. 주선이가 일곱 살 되던 해에 서울로 이사를 했다. 별 뿐족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당시의 농촌 경제가 짐을 꾸리게 만들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탓에 고생이 많았던 백춘웅 님은 똘똘한 주선이를 제대로 공부시키려면 아무래도 도시가 나을 듯 싶었다.

“주선이는 또래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말을 뒹여요. 세 살 무렵에는 얘기를 곧잘 했지요. 그리고 몸놀림도 아주 뛰어어요. 다른 동네까지 이름이 자자했어요. 커다란 짚날가리를 기어오르는 놀이를 할 때도 몸집도 쪘지만 애가 어찌나 야물딱지게 오르는지 사람들마다 ‘쟤

가 누구냐’고 항상 물어봐요. 지 아버지나 나를 만나도 ‘주선이 잘 있느냐’고 개 안부부터 물었어요.”

어머니는 영특한 아들이 기특해 닷새 장이 서면 공책과 연필을 사다주었다. 그러면 주선이는 따로 교육받은 일도 없이 그림이나 글씨로 곧잘 채워나갔다. 서울로 와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 중, 고등학교를 장학생으로 마쳤다. 대학 입학할 때도 장학금을 받았다.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게 될지 몰라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았던 때였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생길지 몰라도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지 아버지나 나나 그저 고마웠지요.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풍족하지 않은 자기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고 하면서 엄마를 안아주던 놈이었어요.”

### 값지게 멋있게 후회않게 잘하라

그런 주선이가 1학년 2학기에 들어서면서 엄마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고 어쩌다 들어오는 날이면 잔뜩 더럽혀진 옷이며 운동화, 새까맣게 그을린 팔 다리 얼굴하며… 어머니는 주선이 아버지를 불들고 아들앓이를 시작했다.

“아무래도 저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있다. 신발, 피부를 봐라. 공부하는 사람 몰골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지아버지는 날 보고 극성스

런 엄마라고 되레 큰 소리였어요. 그 양반 말이 그동안 그만큼 공부한 것도 어디냐는 거예요. 대학 들어갔으면 낭만도 즐길 필요가 있다 이거래요. 누가 그걸 모르나요.”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차마 못하고 남편에게만 일침을 놓았다. 나중에 운동하는 거 엄마가 몰라서 말리지 않았다고, 그런 것도 모르는 엄마였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언제나 고단한 삶의 기쁨이었고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는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선택한 일이 그릇된 일일리도 없었다. 다만 어머니는 아들이 싸우려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아들이 얼마나 여린 속내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다.

그 뒤로 말은 안했지만 늘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 그러다가 3학년 무렵에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때 눈가가 찢어져 피흘리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쳤다. 그 장면을 본 친척들이 달려오고 주선이네는 혼비백산했다. 그러나 정작 다쳤다는 주선이는 열흘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학생들도 나쁜게 말을 안해 줘요. 숨어 있으면 숨어 있다고 해야지. 부모 속이야 시커멓게 타든지 말든지 그저 모르겠다는 말만 하고… 지금이야 웃으며 얘길하지만 그때는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이 진짜로 그것만 알면 살 것 같아서 점을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했지요. 정말이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식구들 떨게 만든 주선이는 눈가에 일곱 바늘을 꿰맨 채 14일만에 나타났다. 아버지는 살아있으면서도 식구들 말려죽일 뻔한 매정한 아들에게 화

가 치밀어 생전 처음으로 자식을 때렸다. 아예 두들겨 팤다. 앞으로 더 험한 폴을 당해도 견뎌내야 하리라는 식구들의 다짐이기도 했다. 그런 신고식(?)을 마친 뒤로 주선이는 당당하게 단과대 회장으로 뽑힌다. 어머니는 그저 이 1년 무사히 넘어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주위 사람들이 똑똑한 자식들에다 화목한 집안인데도 왜 살이 안 오르냐고 물어도 대꾸할 정신조차 없었다. 이런 어머니의 간절한 지원(!)을 등에 업은 주선이는 아예 총학생회장으로 나섰다.

“어쩔 수 없이 잘하라고 했죠. 값지게 멋있게 후회않게 잘하라고. 그리고 저는 그저 8.15만 넘기라고 또 빌었고. 8.15가 다가오니까 사지가 막 떨리고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어요. 아예 살이 떨려서 내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구분을 못할 정도 였어요. 소환장이 수도 없이 날아오고 형사들이 차례로 들이닥치고. 그러다가 주선이가 연세대에 있다는 ‘통보’를 했어요. 과학관에서 책 보고 있다고,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데 기가 꽉 막히지요. 그때 집에는 군에서 휴가 나온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개한테 내가 밥을 차려줄 수 있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겠구나 싶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는 애 입속으로 순가락을 들이밀었지요.”

형사들이 24시간 집을 감시하느라 동네 사람들 눈초리도 사나와지고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 와중에서 가까스로 형사를 따돌리고 ‘간이 콩알만 해져’ 옷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주선이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주선이는 주선이대로 구속된 학우들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잡느라 어머니를 반길만한 여

유가 없었다. 그래서 왜 찾아왔느냐고 박정하게 대했다. 아들의 야속한 말에 참았던 울음이 터지고 급기야 어머니와 아들은 대성통곡을 했다.

### 지금도 큰 공부를 하는 거라니

노량진 경찰서 형사들이 어머니에게 일러준 말이 있다.

“민가협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귀찮은 단체니까 가지 마라. 시시때때로 나오라고 괴롭힐테니 애초에 나가지 말라. 당신 살아가는데도 보탬이 안된다.”

그 말은 곧 감옥에 있는 주선이를 노린 말이었다. 그보다 더한 올가미는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민가협 아주머니’들만 보이면 뱀을 만난 듯 피했다. 그러다가 중앙대 학생들이 ‘어머니의 하루’라는 비디오를 찍으면서 교도소와 마찰이 생겨 민가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도 그 틈에 묻어왔다. 그제서야 민가협을 알아보았다. 그런 미안스런 기억 탓에 어머니는 몸둘 바 몰라 하시며 더욱 열심이다. 지난 5월 한양대에서 열리기로 한 ‘한총련 출범식’이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으로 인해 한양대 주변에 열선거리기도 어려웠을 때이다. 어머니는 민가협 어머니들과 한양대를 찾아간다. 그러나 정문앞에는 학생들 보다 많은 전경들이 출입을 막고 있었고 학생들은 평화적인 출범식을 보장하라며 그 앞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어머니는 또 학생들이 다칠까봐 안절부절 이었다. 그런데 바로 어머니 코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드러누워 있는 학생들에게 전경들이 최루탄을 뿌리고 학생들을 끌어가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 아들도 저랬으리라, 우리가

있어도 저 모양이니 학생들만 있으면 얼마나 크게 당할 것인가”, 어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우리라도 나서 자식들의 방배막이가 되어 주어야하지 않을까 하고. 한편으로 어머니는 ‘한총련’에 대해 정부가 그렇게 심하게 탄압을 할수록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 “한가지만 고집하는 것을 보면 더 큰 것을 잊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신다. 지난 8월 한총련 학생들이 조계사에서 농성을 할 때, 어머니는 민가협의 새내기인 다른 ‘한총련 어머니’들과 아예 학생들 옆에서 살다시피 했다. 짚을까봐 벽을 것 갖다주고, 행여 전경들에게 매맞으며 끌려갈까 봐. 그러면 서도 학생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농성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만 하셨다.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지금은 힘을 모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였다.

“내 자식만 안 끼었더라면 좋았겠지요. 모르고 무사히 졸업했더라면… 지금 정역 사는 일이 앞으로 지 장래에 얼마나 걸림돌이 될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욕심 같아서는 사법시험을 보라고 하고 싶은데 마냥 우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법 이전에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지금도 큰 공부를 하는 거라니 할 말이 없지요. 뒷보다도 지 좋아하는 거 못 먹이니 가슴이 아파요. 추석이라고 식혜니 한과니 생각날텐데, 포도, 사과, 제 철 과일 지친인데……”

이렇게 씩씩한(?) ‘민가협 엄마’ 이지만 다시 주선이 얘기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눈가에는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한다. ☺

## 이제, 아빠노릇 하고 싶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운동 담당 교도관이 제의 반, 질문 반으로 물어왔습니다.  
'박영희씨는 교도소 안에서 무얼 제일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슴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독거방이 아닌 혼거방에서 정치범 대여섯명과 하루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밤이 새도록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는...'  
잘 아시다시피 교도소내에서도 정치범과 일반범은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텅군다는 것.  
건강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수형자보다 독거 수형자가  
먼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 답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아닌 말로 조금 특별한 음식 먹는다고 살이 찌겠습니까.  
혼자 먹는 음식이 무에 그리도 맛이 나겠습니까.  
서울구치소에서 대전, 안동교도소에 머물때만 해도  
딸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가 크자 바뀌더군요. 이제는 깨끗하게 목욕시켜  
잠든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는게 소원입니다.  
성장의 변화가 이렇듯 변화를 놓은 것이지요.  
깨끗하게 목욕시켜 잠든 아이를 가운데 누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면...  
이런 꿈으로 6년째를 살아갑니다, 수인인 채.  
정말이지 혼자서 별 보고 밥먹는 것, 혼자 잠든다는 것 이젠 진절머리가 납니다.  
쓸데없는 투정같지만 이 너른 세상에 자식보다 귀한 존재가 또 어딨겠습니까.

기대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번 8.15는 웬지 모르게 허탈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힘겹게 많은 행사를 하셨는데...  
귀뚜라미가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매미의 울음소리가 고향이라면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향수 쯤 될까요.  
방랑이 깊을수록 고향이 사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풀어도 풀어도 끝이없는 가슴은 이래서 무한한 고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암담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옥문은.  
양말을 신을 것 같지도 않고, 구두를 신은 것 같지도 않고  
꼭 끼는 거들을 입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97년 8월 저 옥문은.  
덥기도 하지만 저 담장, 저 옥문 보면 숨이 콰콱 막혀옵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 남편 노릇, 아빠 노릇하고 싶습니다.  
그럼 건강 하세요.

- 박영희 님은 시인으로 시집 〈해뜨는 검은 땅〉(창비 간)이 있고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방북혐의)으로 구속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 구금중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한지흔 님

## 가난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편집부



▲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과 함께 선 한지흔 님. 왼쪽에서 세 번째 분.

저는 그동안 큰뜻에만 매달리느라

이런 이웃들의 경건한 삶을 지나치고 있었지요.

그런 가르침이 너무 고맙고 부끄러웠어요.

'살수록 힘하고 기댈 곳 없이 외로운 세상인데도 가을은 다시 찾아와서 가랑잎과 밤알과 풀벌레 소리가 읊어버린 고향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들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또한번 선물로 주신 이 가을에 달개비 비단 꽃잎과 같은 저녁하늘이 있는 시의 세계로 우리 모두 찾아가 보지 않으렵니까? 다음과 같이 시민 시잔치 마당을 벌이기로 하였으니 이 잔치상을 차리고 받는 일에 누구든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별관.

우리 시대의 어른 이오덕 선생님께서 손수 쓰신 글이다. 시민회관을 개인이 빌리는 일은 드문 일이다. 전시회 내용도 기발하다. 자기가 좋아하거나 지은 시를 주최측에 가져가면 표구를 해전시한다는 것인데 모두 폐품을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세계에서 처음하는 일이라고 사랑하셨다.

〈우리집을 못찾겠네요〉, 〈작은세상〉. 한 선생님이 하시는 찻집 두 곳의 이름이다.

- 작은세상은 예전에 우리네 시골에서 흔하게 보던 사랑방 같은 곳을 뜻하고, 여기 〈우리집을…〉은 아직 꿈의 집을, 그러니까 꿈꿀 수 있을 만큼 편안하고 따스한 정이 있는 공동체를 아직 못 구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꿈의 집을 만들만한 힘이 여기서 모아지면 이름을 바꿀 거예요. 〈우리 집을 찾았네요〉라구요. 지금은 그 정도지요.

처음 〈우리집을…〉에 들어서면 꾸밈솜씨에 놀라게 된다(작은세상도 마찬가지). 큰돈 들인 도심 변화가 찻집인양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멋에 놀라고 그 가구들이 하나같이 주워온 물건이라는 데에는 믿지 않으려 한다. 마치 버려진 물건들로부터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처럼 보여진다. '나는 이러이러한 자리에

놓이면 더 멋있지요.' 라든가, '나는 아직도 쓰일 수 있어요' 라든가... 요컨대 버려진 물건 하나에도 그 생명의 기운을 볼 수 있는 눈이랄까 마음이랄까 그런 것을 갖고 계신 듯하다.

- 가난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안한 적도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쟁기 작은 바탕 하나씩 메고 모여서 버려진 땅을 살리는 거예요. 실제로 한 40여일 동안 황무지를 일군 적이 있었어요.

새로운 공동체 삶을 위해 마음이 맞는 사람들 이 황무지에 모여 들었다. 버려진 땅을 생명이 일렁이는 땅으로 바꾸었다. 그러자 땅을 빌려준 사람 주변에서 잡음이 불거졌다. 게다가 자기를 믿고 기꺼이 땅을 빌려준 주인이 곤란하게 되자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기적 인 삶과는 다른, 다같이 사는 삶의 가능성은 위해 버려진 땅을 살아있는 땅으로 바꾸느라 땀과 정성을 쏟은 일행들이 반발했다. 그러나 노여움과 사람에 대한 절망마저 깨끗이 버리고 가자고 달렸다. 떠나는 날 잡음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을 불러 소탈한 상차림으로 정성껏 식사대접을 하고 양금을 씻는 잔치까지 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꿈을 펼칠 자리를 물색하고 있다.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올해 우리 나이로 쉰일곱이신 선생님은 3남매를 두고 계신다. 하나같이 개성이 뚜렷하고 자립심 강한 건강한 젊은이들이 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의 엄마와 판이하게 다른 모습에 소외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다. 이제는 얼마나 홀륭한 어머니인지 자랑하고도 모자란다. 한선생님은 또 다른 아들과 딸이 있다. 바로 수양딸, 수양 아들이 되기를 자청한 사람들. 사람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창조하는지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선생님의

향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넉넉한 살림인데도 입지 않은 옷은 입지 않고 손톱은 깎는 법없이 일로 빽빽하게 하면서도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는 방바닥 장판에 넣어둔 지폐를 쥐어보내시던 친할머니, 언제나 고구마 밭 한이랑을 남겨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시던 의할머니,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든 장기수 선생님들, 눈물을 흘리며 인간에 대해 생각하게 했던 생체실험을 고발한 <마루타> 책자를 꼽을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생각하며 살았다. 우리말 우리 글의 공해문제를 '옳다' 무릎을 치며 공감하던 참에 85년, 정동에 이오덕 선생님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닿았다. 그분 사시는 모습에 감동을 하고 반성했다. 그 모습에 비추면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인가. 그러다가 세배드리고 오는 길에 헌책방 할만한 가게를 눈여겨 보게 되었고, 과천살이를 시작했다. 헌책방을 하면서 '과천 독서회'를 만들었다. 그 독서회가 환경모임으로 발전하고 다시 '과천 시민모임'으로 커지고 평범한 시민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궁리하고 실천하는 문화공동체를 꾸리게 되었다. 모임의 구성원들 가운데는 이름만 대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도 여럿이다. 그 중심에서 한선생님은 사람들을 엮으며 향기를 퍼뜨리고 계신다.

독서회를 꾸리면서 구세군 양로원에 계시던 이인모 선생님을 찾아뵈게 되었다. 그때 속엣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감동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장기수' 존재에 감사했다. 93년 이인모 선생님이 고향 가실 때 '지리산'에서 딴 녹차를 드리기 위해 밤기차를 타고 달려갔다.

- 제가 선생님의 손을 꼭 쥐고 말씀드렸죠. 지금 가시면서도 가슴에 맷히시는 일들이 너무 많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선생님의 아픔을 짊어지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때 만나서 다 얘길

해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해내는지 지켜보세요, 라구요. 통일이 되면, 정말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의 자잘한 이야기도 많구요. 마음 다치시기도 잘 하시는 선생님들께 종알종알하고 싶은 얘기도 많아요. 알려지지 않은 노래들도 많이 모았어요. 그거 다 책에다 쓸 거예요. 너무 너무 할 일 이 많아요.

어제 일인양 금새 눈가가 흐려지면서 스러질 듯 휘청하신다. 통일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아픔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라고. 분단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상황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신다.

- 4월쯤에 몸이 안 좋은 평계를 대고 난생 처음 일을 쉬었어요. 몸을 움직이던 사람이 놀자니 너무 심심해서 나물을 뜯었지요. 그래서 이웃의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만 사천 삼백 원인가를 동전까지 손님한테서 받았던 그대로 제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없다 말려도 “가는 길에 팔아준 것 뿐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도둑으로 만들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어찌나 신실한 얼굴로 그러시던지 목이 메였어요. 저는 그동안 큰뜻에만 매달리느라 이런 이웃들의 경건한 삶을 지나치고 있었지요. 그런 가르침이 너무 고맙고 부끄러웠어요.

‘보잘 것 없는 사람,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사람’. 이 말을 여러번 듣다보니 궁금해졌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 저는 제가 받은 사랑에 보답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가게가 있는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내복을 사들고 오신 거예요. 또 청소 아주머니를 위해 입구에 계단을 3층 만들어 놓고 너무 미안해 하시던 분도 있으세요. 제가 침을 놓으려 다닐 때면 대접할 게 없다고 제가 가는 시각에 맞춰 밥을 짓

는 분도 계셔요. 제가 그분들의 정성을 흉내내겠어요? 또 제 건강을 염려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그런 큰 사랑은 생각해 본적도 없어요.

결국 사랑이 사랑을 알아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 하는 동안에도 흰고무신을 신고 월새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러나 단순히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워낙 마르신 데다 신장은 한쪽 뿐이고 장을 7센티미터를 잘라낼 만치 형편없는 건강이다. 그럼에도 스스로에겐 한없이 인색해 쉴 틈을 주지 않는다. 오죽 하면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이 모여 한선생님 건강문제를 의논할까. 그런데도 전시회 준비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음식을 새벽마다 장만하고 하루종일 찻집에서 종종걸음하고… 이번 가을 전시회는 몇해 전부터 봄철에 선생님을 모시던 자리를 가을로 옮겨 차리는 뜻이라고 한다. 지난 봄 어느 잡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일이 소개되기도 했다. 누가 이 삶을 흉내낼 수 있을까.

- 해야할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특히 건강상 그러할 때. 또 인간적인 신뢰도가 어긋날 때, 자기 의도와는 다른 일이 빚어지고 오해가 생길 때 제일 힘들어요. 이런 취재도 힘들어요. 저는 정말 사는 일이 서툴고 부끄러운 사람인데 이렇게 펼쳐놓으라니……

“엄마는 이번 취재기사가 나가면 사나흘 앓으실 거예요.” 따님이 나직하게 말했다. 어떻게 하면 그처럼 살 수 있을까.

## 한선생의 손

노경화(화가 . 35세)

한선생은 멋쟁이시다. 웃은 주로 검정색이나  
카키색을 잘 입으신다.  
중옷처럼 헐렁한 바지에 신발은 남자고무신을 신는다.  
아무리 추워도 겨울에도 양말은 신지 않는다.  
머리는 늘 단발한 생머리다. 몸집만한 배낭을  
끌다시피 들고 다닌다. 뒤에서 보면 어느 구석에서도  
오십대 중반의 나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끊게 나이먹은 미인의 신기서린 듯한 표정과  
아무렇게나 입은 듯한 세련된 몸차림은  
한선생이 뿜어내는 아름다움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다른 부분에서 나온다.

손이다.

손은 마디가 굵고 투박하며 잔 흥터가 수없이 많다.

손톱밑에는 항상 까만 물감 때가 끼여 있다.

소위 미인의 손과는 닮은 끗이 없다.

한마디로 농부의 손이고 노동자의 손이다.

자신의 땀을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구 사용한 손이다.

웬만큼 노동하는 여인이 끼고 있는 반지도

한선생의 손가락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일을 많이 해서 손아귀 힘도 아주 세다.

한선생의 세련된 아름다움.

그것은 한선생의 깊숙한 내면에서 우러 나오는  
조용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일 것이다.

한선생의 이러한 아름다움.

한선생의 손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머니의 그지없는 따뜻한 정을 느끼면서 고마워하는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아닐까?

## 97 여름수련회를 다녀와서

#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우리는 한가족

김은하(28세, 회원)

여름수련회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간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풍물이 어려운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저 역시도 그들과 함께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 조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할 동안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지난 8월 23일, 24일 이틀간 민가협 여름수련회가 민가협 어머니들과 장기수 선생님들, 후원회원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에서 열렸다. 어머니들과 몇 회원들은 11시에 미리 출발을 했고 회원들은 4시에 청량리역 시계탑 앞에 모인 후 4시 30분 경춘선 열차를 타고 대성리로 향했다.

집에서 전철을 타고 청량리에 도착했을 무렵부터 나는 걱정아닌 걱정에 빠져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서먹서먹한 가운데 본의아니게 '북바권'을 행사해야 한

다면...' 내심 불안하기조차 했다. 내성적인 성격 탓으로 낯을 가리는 (?) 것이 걱정의 도를 지나 불안으로 업습해온 것이다. 생각대로 안면이 있는 분은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밖에 되질 않았다.

'내가 괜히 왔나봐. 내 이럴 줄 알았더니까. 집에서 그냥 폭 살걸... 아니야 이처럼 좋은 만남의 기회를 놓쳐 버린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한가족처럼 생각하자.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먼 친척뻘이 되듯이 곧 서먹함은 없어질 거야.' 후회하는 마음과 용기를 북돋우는 두 가지 마음이 오고 가는 사이 열차에 오르게 되었다.

주말이라 그런지 좌석은 물론 입석마저 꽉 들어차 더 이상 사람 들어설 공간 하나 보이지 않았던 열차 안은 소란스럽기는 했지만 여기저기에서 과자며 음료수며 싸온 음식들을 먹는 모습이 마치 소풍나온 아이들처럼 천진스럽게 보였다.

드디어 대성리다. 역에 내리니 먼저 도착했던 분들이 환영하러 나와 있었고 우리는 수련장을 향하여 아이들처럼 줄을 서서 북한강변에 새로 단장한 산천기든으로 갔다. 어머니들이 어서오라며 반가이 맞아주신다. 고향집에 온 느낌. 우리는 부리나케 짐을 정리하고 바로 개막식을 진행했다. 저쪽에서는 가마솥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있고 벌써부터 김이 모락모락...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를 알아야 한다며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는 120명이 짧게는 자기 이름만 말하고 길게는 사회자의 '엘로우카드'를 받으며 장황하게 인사말과 더불어 덕담을 하기도 했다. 꽤 긴 시간이 걸렸지만 반가운 사람들과의 소중한 만남이 되는 자리라 모두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며 귀담아 듣고



▲ 공부도 열심! 이기욱 변호사의 인권강좌 시간. 모두 눈망울이 초롱초롱!

있었다. 또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들이 가득해 얼굴빛이 지는 해와 더불어 바깥쪽에 상기된 듯하고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가족을 감옥에 두신 분들이나 오랜 세월 감옥에서 푸르디 푸른 청춘을 흘러 보내고 나오신 분들이나 모두들 존경스럽고 반가웠지만 내가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엄마를 따라 온 초등, 중등, 고등학생이었다. 민기협, 그리고 양심수후원회라는 모임에 나온것도 대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자체가 동생들에게 부끄럽기도 했다.

김남식 선생님의 통일강연이 끝나고 밤이

무르익어 가면서 '슈퍼우먼' 김주희 회원의 사회아래 멎지고 신나는 대동놀이가 시작되었다. 으슥한 밤인데도 몸을 아끼지 않고 모두들 '광란의 밤'을 연출했는데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에 비해 오히려 젊은 후원회원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뜨거나 나무막대같이 뻣뻣한 포즈로 서있었다. 밤늦도록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흥겨운 놀이를 한 턱에 그 다음날은 아침체조 시간에 불참이 많았다.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았으니까. 이정태 회원의 지도아래 '몰풀기 체조'를 하고 강변따라 조깅을 끝마친 뒤, 간단한 무술연마까지 이어졌는데 나에게는 좋았지만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하룻밤을 자고 나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왔다.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반성이 일었다. 어

쨌든 색다른 경험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이어서 시작된 이기욱 변호사님의 인권강의는 평소 딱딱하다고 생각된 법률문제가 너무 쉽게 들리고 생활에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다리 끌고 달려 밀가루 안에 든 사탕먹고 돌아오기, 닭싸움 등 '작은 올림픽' 시간에는



▲ '나도 한때 육상선수'. 얼굴에 묻은 밀가루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뛴 어머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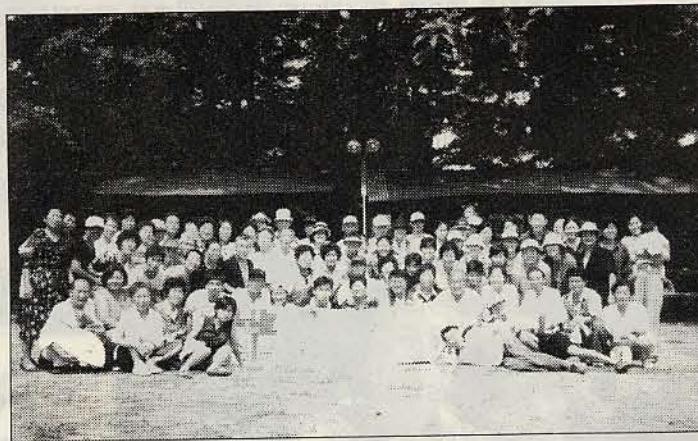


▲ 퀴즈 쇼소서 기발한 질문, 재치있는 대답.

오히려 어머니들이 더 날렵하고 특히 닭싸움에서는 함세환 선생님이 청춘을 과시해 보이셨다. 그리고 '퀴즈 쇼' 시간도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밤을 지샌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즐지 않고 오히려 초롱해진 눈망울로 사회자의 문제를 귀기울여 듣고 있었다. 카레와 미역국이 나온 점심을 맛있게 다 비우고 숙소를 정리하고 짐을 꾸린 후 정자에서 폐막식을 진행하며 평가의 시간과 더불어 시상식을 겸들였다. 사회자의 재미진 입담으로 모두들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 즐거운 시간이었다. 멀리서 오신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 민가협 어머니들과 숙소수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신 어머니, 식사와 술안주 등 먹을거리 준비에 혼신을 다하신 회원등이 수상하셨는데… 역시 진행자들의 눈은 예리했던 것 같다. 아주 적절하게 시상을 해서 받는 분은 받는대로 기뻐했고 보는 이들은 다음번에는 그 모범을 따라 배우리라 굳게 결의(?)하는 장이 되었다.

짧았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갈 때와는 달리 전세버스를 이용해 모란공원에 안치된 고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한 민주열사들의 묘에 참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 수련회에서 그냥 푹 쉬고 놀고 온 것만은 아니었다. 김남식님과 이기욱 변호사의 강의가 있어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었고 푸짐한 식단이 이어진 가운데에서도 일요일 아침 시간에는 북한동포의 굶주림에 함께 한다는 의미로 죽 한그릇 먹기 시간도 있었다. 수련회 기간동안 쌀 한톨, 김치 한점 버리지 말자는 지침 역시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를 생각한 것이었다.



▲ "나 어디 있나" 마지막으로 모두 기념사진을 찰칵!

이렇게 한데 어울리다 보니 내가 처음 느꼈던 어색함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냥 헤어지기가 아쉽기만 했다.

사는 곳도 다르고, 연령도 가지각색이었으며 직업도 제각각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1박2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동안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 나는 크게 감동 받았다. 우리를 한데 묶었던 서로에 대

한 애정과 배려가 있다면 남과 북도 역시 어려운 난관은 있을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내 마음은 벌써 가까이는 9월 산행이 멀게는 내년 수련회가 손꼽아 기다려진다. 9월 산행에서는 정답던 그 얼굴들을 또 볼 수 있으리라 잔뜩 기대에 부풀어 본다. 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언론사업국장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 19일 강원도 삼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수련장에서 있었던 경찰의 불법적인 인권 침해 사건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날은 명륜동, 울전 총학생회 간부들과 학생처 직원들이 본교 수련장에 모여 수련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19일 오후 4시경 성균관대학교 50여명의 학우가 한참 수영을 한 뒤 배구를 하는 사람, 수영을 더 하는 사람, 그리고 샤워를 하는 사람 등으로 나뉘어 자유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경찰이 왔다!”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수련회에 참가하고 있던 정기철 총학생회장이 형사들에게 팔을 꺽인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우들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고 남학생들은 너무도 갑작스런 상황에 어떻게든 총학생회장의 연행을 막아 보고자 몸으로 막아 나섰습니다. 그러자 형사들에게서 “저 X새끼들, 말 안 들으면 쏴 버려!”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장 한 형사가 한 학우의 이마에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학생들에게 총을 겨누는 겁니까” 우리들은 너무도 놀라 팔과 다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고 그 와중에 다른 전경들과 형사들은 곤봉으로 우리들을 밀어내고 내려치고… 우리는 그 앞에 내동댕이 쳐진채 총학생회장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수련장에 함께 계셨던 학생처 직원들도 “이게 느닷없이 무슨 행패들이냐”며 형사들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밀리는 직원들에게 경찰은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이렇게 저희들과 직원들이 말리고 경찰에게 구타당하는 동안 총학생회장을 실은 경찰버스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순간 50여명의 학우들이 ‘총학생회장을 내놓고 권총 위협 등 폭력행위를 사과하라’며 경찰버스 앞에 드러누웠습니다. 20여명의 전경들은 우리를 빼어 놓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빼어놓으면 다시 붙고 빼어놓으면 붙고… 그러기를 몇 차례, 그제야 경찰은 자세를 바꾸어 폭력적인 연행에 항의하던 학생처 직원들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학우가 경찰차에 실린 정기철 회장이 마지막으로 담배 한 개피만 나누어 필 수 있도록 부탁을 했고 주먹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틈으로 담배를 건네주고 뚜렷이 볼 수 없는 총학생회장에게 라이터 불을 붙여 주며 너무도 서러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주변의 학우들이 울기 시작했으며 어린 여학생은 경찰에게 울면서 항의했습니다. “도대체 기철이 오빠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경찰은 왜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곤봉을 휘두르나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는 얼마가지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높은 직위에 있는 듯한 한 경찰이 명령을 했고 우리들은 전경과 형사들에게 머리를 잡히며 팔뚝으로 목을 휘감긴 채 내팽겨쳐지고 곤봉으로 밀어 재껴지고… 차는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다시 차의 앞뒤에 매달려 보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차에서 안 떨어지려고 붙잡고 늘어졌으나 경찰들은 우리의 팔을 꺽으며 밀어뜨렸으며 차를 붙잡고 있던 손은 찢어지고 우리들의 몸은 땅에 내팽개 쳐져서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발톱이 부러지고 옷은 찢어지고 모두들 상처투성이로 땅에 벼려졌습니다.

그렇게 성균관대 정기철 총학생회장은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사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한총련을 이적단체 운운하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간부를 사법처리하겠다며 협박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한총련 수배 학생을 체포한다며 대학교정에 까지, 대학의 자치공간 구석구석 병력을 투입하여 학생들을 곤봉으로 구타하고 마구잡이 연행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장도 없이 학생 자치행사까지 경찰병력을 동원, 직원들까지 말리는 가운데서 경찰이 학생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서슴없이 “쏴버려!”라고 명령하는 작태가 벌어졌습니다. 도무지 군사정권 시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인권유린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러한 비상식적, 반인권적인 불법연행,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 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글은 지난 8월 28일,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성균관대학교(명륜동) 총학생회 언론사업국장이 발표한 글입니다.



이유정 변호사의  
인권 법률 상식

## 수사절차에 관하여 1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하며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는 피의자의 자격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내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이 되고 난 이후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구속된 날로부터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간 1차 연장 가능함)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최종처분을하게 됩니다. 단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찰에서 10일간 1차 연장 가능하며 검찰에서는 10일간 2차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50일까지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경찰에서는 2개월 이내, 검찰에서는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모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찰에서 입건된 사건 가운데 경미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후 추가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서의 수사기록만으로 검사가 최종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면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에는 공판청구(구공판)와 약식명령청구(구약식)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공판이 되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공판절차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반면 구약식이 되면 법원에서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별금형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혐의 사실을 모두 자백하기 때문에 공판절차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고, 사안이 경미하여 별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구약식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혐보다 중한 혐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8 · 1 - 민가협, 전.노 사면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강남 고속터미널 앞).
- 대검 공안부, 한총련 탈퇴하지 않은 72개대학의 한총련 중앙조직원 457명에 공개소환. 1차 형사처벌 대상으로 중앙위원과 국장급 간부 56명에게 5일까지 관할경찰서로 출두요구서 보냄.
- 2 - 민가협, 전.노 사면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청량리역 광장).
-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로 수사받은 최엽섭(창해산업 이사)씨, “검찰에서 수사관 2명으로부터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며 전치 5주의 진단서를 공개.
- 3 - 교육부, 한총련 탈퇴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검찰의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징계조치하도록 각대학에 지시.
- 4 - 민가협, 전.노 사면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여의도 백화점 앞).
- <한겨레신문> 송현준 기자, 7월 28일 종로경찰서 내에서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진경원 경사를 ‘폭행혐의’로 고소.
- 5 - 민가협, 전.노 사면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광화문 빌딩 앞).
- 남북과 미.중 등 4국 고위급 대표들 정전협정 44년만에 ‘뉴욕’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4자회담 예비회담을 갖고 의제, 절차 등 논의
- 6 - 민가협, 전.노 사면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명동 성당 앞).
- 국제 사면위원회(AMNESTY), 아시아 인권위원회(AHRC, ACPP), 스위스의 고문방지단체(OMCT), 전.노사면 반대 탄원서와 성명서를 청와대 등으로 보냄.
- 7 - 과거청산 국민위 주관으로 전.노사면 관련 신한국당 당사 앞 규탄집회.
- 7 - '97 양심수석방 캠페인 첫째날. 선포식, 5·6공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 하루
- 감옥 체험(김영태 변호사, 최영미 시인, 김홍신 의원, 영화배우 윤동환 님, 우세관 원불교 교무, 방송인 정범구 님, 백도명 서울대 의대교수), 전.노사면 반대 만민공동회, 특집 민가협 목요집회 194회.
- 8 - '97 양심수석방 캠페인 둘째날. 하루감옥 체험 (만화가 이두호, 장태산, 원수연 님, 작가 이정하 님, 박은종 신부, 문대콜 목사, 이기욱 변호사), 양심수 자녀들과 만화가들이 함께하는 양심수 희망그리기, 제4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민가요제.
- 6월, 전경에게 폭행당해 입원했다가 12년전 탈영사실이 드러나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이철용씨 집행유예 2년 선고.
- 9 - '97 양심수석방 캠페인 셋째날. 하루감옥 체험 (영화배우 권해효 님, 강금실 변호사, 혜진 스님, 정성일 영화평론가), 만민공동회, 인권교육, 양심수 석방을 위한 1천여 성당 종울리기, 양심수 석방을 위한 희망의 밤 콘서트.
-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8만명에 이르는 북한 어린이들이 현재 아사 직전의 절박한 위험에 놓여 있으며 적어도 80만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 10 -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용웅 부장판사), 교도소 수감중 기관지 천식으로 사망한 노아무개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교도소에서 병에 걸려 숨진 경우 본인이 적극적인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국가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결.
- 11 - 정의구현 사제단 주관 ‘양심수 우선 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카톨릭회관 강당) 열림. 천주교 1천7백여명의 사제, 수도자, 전.노사면 반대와 양심수 우선석방을 촉구하는 시국성명 발표.
- 철거민 고 박순덕 열사 방화살인 책임자 처벌과 민중주거권 생취를 위한 비대위가 명동성당

##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감.

- 한총련 구국농성단 60여명, 조계사에 들어가 '한총련 탄압 중단' '범민족대회 보장' '대선 자금 공개'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감.

12 - 한총련 소속 11개 학생회 기자회견 갖고 한총련 강제탈퇴 반대운동 성명 발표.

- 조계사 한총련 구국농성단에 조계사측 보호원 채 천명. 민가협 회원들 학생보호차 방문.

-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였던 주 펀랜드 이인호 대사, 시인 최영미 씨 등 서양사학과 교수 졸업생 등 204명의 동문들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복역중인 황인욱씨의 석방탄원서를 냄.

-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 주최로 13-15에 열리는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고 이 대회에 참가하는 한총련 중앙조직원을 구속키로 함.

14 - 민가협 195회 목요집회. 전농동 철거투쟁 사례 보고(박순덕 열사 남편), 안기부에 체포, 구속된 김진성 씨(형 김수철씨) 사례보고.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양심수 석방하지 않은데 대하여 민가협 규탄 성명 발표(서경순 어머니).

- 한국국적 가진 재일동포 2세들, 오는 12월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현법재판소에 현법소원.

- 경찰청, 130개 중대 17,000여 명력을 각대학, 지하철,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에 배치,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고 학생들을 무차별 해산 연행.

15 - 97평화통일 민족대회,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가족공원에서 열리다.

- 법무부 광복절 맞아 무기수 9명과 10년이상 장기복역수 35명 등 모두 318명 가석방 시키고 보호감호자 42명을 가출소시킴. 그러나 양심수는 한사람도 없었음.

16 - 야권, 오의제 씨 월북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조사단 구성과 국회정보위원회 공개회의 소집 요구.

-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 프레스센타에서 '국민승

리 21(가칭)' 건설과 국민후보 추진을 위한 선언자 대회 개최.

- 한총련 대표로 쿠바 청년학생축전 참가와 북한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가 해외체류중 이를 거부한 양현주(홍익대 건축과 제적)씨, 귀국후 안기부에 연행 조사 뒤 20일 훈방조치.

- 민가협 회원들, 쌀 반찬거리 등 구입해 조계사 농성 학생들에게 전함.

19 - 전국민주택시노련, 탑골공원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제도 개혁과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갖다.

- 안기부와 검찰, 오의제 씨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월북한 고정간첩이라고 단정짓고 자택 압수 수색 실시.

- 세계식량계획, 금주 내로 북한 4천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계획.

- 진관스님 항소심 공판 증인심문 증인으로 나온 강병연 씨(구속), 진관스님으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할만한 어떤 서류도 받은 일 없다'고 증언함.

20 - 민가협, 유가협 대표들, 조계종 총무원장과 조계사 호법주임 스님 등 만나 한총련 구국농성단의 자진해산, 귀가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촉구함.

21 - 민가협 196회 목요집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후꼬꾸 해고 노동자들 사례발표함

- 변정수 전 현법재판소 재판관 등, 정부가 전노두 대통령 등 12.12와 5.18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14명의 훈장을 4개월째 박탈하지 않아 자신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김영삼 대통령을 상대로 훈장치탈의무 불이행 위헌 확인 청구를 위한 현법소원 제출.

-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민형기 부장판사), 한총련 출범식 관련으로 구속기소된 28명에 대해 1년6월 실형에서 집유2년까지 선고함(실형 11명, 집유 17명)

23 -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 여름수련회 첫날. 민가

협 회원들 전세버스로, 회원들은 열차로 대성리 국민관광단지 산천가든 도착. 97여름수련회 개막식, 회원소개시간, 저녁식사, 강의('평화와 통일에 대한 전망' 강사-김남식 님), 대동놀이로 이어짐

- 24 - 수련회 둘째날. 아침체조(이정태 회원 지도), 아침식사, 강의('법과, 정의, 인권' 강사-이기욱 변호사), 작은 올림픽, 점심식사, 폐막식, 상품수여,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 참배 후 서울에 도착
- 26 - 민주노총, 서울역광장에서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대회' 열다.
-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불법체류 노동자 모하메드 압둘칼레(방글라데시) 씨에게 퇴직금 지급하라"고 판결
- 27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씨가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 260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
- 28 - 민가협 197회 목요집회.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

국장),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연행과 관련해 경찰폭력 사례(총학생회 언론사업국장). 꽃다지가 좋은노래로 함께 함.

- 유가협 의문사지회 소속 유가족, 강제징집되어 의문사한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하며 31일까지 명동성당에서 농성 돌입. 민가협 회원들 격려방문
- 29 -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군의 생화학 부대인 731 부대의 생체실험 등에 관한 기술을 교과서에서 삭제토록 한 문부성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결.
- 30 - 월간 <말> 9월호를 다섯 곳의 교도소에 발송
- 5년 이상 장기수 94명에게 영치금 발송
- 31 - 이회창 신한국대표, 전노 전직 대통령을 추석전에 사면하도록 김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 서울지법 민사 합의 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신변에 위협을 느낀 사람이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되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 미국수도교회 자녀돕기 성금을 서경원 의원, 김태룡 님 자녀에게 전달.
- 장가협에 지원금 전달.
- 낙성대 만남의 집, 무연고 출소 장기수 선생님 8분에게 생활지원금 드리다.

## 제2회 인권영화제 - 서울

올해도 다시 한가닥 신선한 바람이기를 바라면서 세계 곳곳에서 '인간을 위한 영상'을 모았습니다. 인권과 영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영화들, 모두 25편이 시민에게 완전 무료로 공개됩니다. '제2회 인권영화제'는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의 후원만으로 이루어집니다.

● 일 시 : 1997. 9. 27. ~ 10. 4. ● 장 소 : 미정 ● 주최 :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741-2407/741-5363)

개인 후원 : 1구좌 1만원 단체 후원 : 1구좌 5만원

후원구좌 국민 822-21-0276-824 (서준식) 농협 033-02-119388 (서준식)

\* 입금하신 후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8월 구속양심수

8. 1. - 8. 31. 총 145명

### 학생구속자

전국대 : 이정은(한총련 관련) 경기대 : 유재구(95 한총련 조통위) 경북산업대 : 차정훈(자료집 관련) 경희대 : 조득진(문화대 회장) 김영필(총학 부회장) 고려대 : 김 익(자연대 회장) 고려대(서창) : 김봉곤(시위) 광운대 : 권오혁(95년 동총련 의장) 광주교대 : 김순주(한총련 출범식) 광주대 : 김균선(시위) 문창준(시위) 나주동신대 : 이동기(한총련 출범식) 단국대 : 이승룡(95년 정경대 회장) 정석인(정대 회장) 정애경(총학 선전국장) 이광렬(한총련 통일축전) 이종화(학원자주화 투쟁관련) 이경석(서총련의장 비서) 이영진 박정철 권기수(서총련 결의대회) 장전섭(서총련 의장) 단국대(천안) : 김중기(시위) 장지석(시위) 장영선(인문대 정체국장) 대구경산대 : 장정숙(한총련 문화국원) 대구대 : 박미정(대경총련 집행위원장) 대구보건전문대 : 서정민(이적표현물소지) 덕성여대 : 최나영 신은미 신정하 김혜신(시위) 김은희(총학생회장) 동명전문대 : 정준한(부율전협 의장) 명지대 : 이수연(총여회장) 김 호(서총련 투쟁국장) 목포대 : 서영옥(학내시위) 정영호 서원태 김성태(이상 민족해방군 사건) 목포전문대 : 조병옥(한총련 출범식) 천재근 유성모(법민족대회) 배재대 : 조선아(이적표현물소지) 부산경성대 : 김유경(96년 전여대협 의장) 조병찬(예술대 회장) 김수철(96년 총학 부회장) 최홍두(부경총련 간부) 김명옥(한총련 문화국장) 부산대 : 나호영(한총련 정책위원장) 부산동아대 : 강종규(95년 조국통일 위원장) 서강대 : 손혜정 류건희(서총련 결의대회) 서울대 : 이호중(한총련 출범식) 장영진 조대호(이상 학생연대) 서울시립대 : 이성진(한총련 출범식) 성균관대 : 장두성(사수대장) 박정열(서총련 출범식) 정한별(이적표현물 소지) 정기철(총학생회장) 성균관대(율전) : 정명훈(총학생회장) 성신여대 : 김정이(서총련 결의대회) 수원대 : 조영탁(총학 사무국장) 순천대 : 오세영(총학 부회장) 김상철(시위관련) 연세대 : 윤지훈(투쟁본부장) 울산대 : 정도철(동아리연합 회장) 이화여대 : 박상은(동아리연합 회장) 방현숙(법대 회장) 인천교대 : 조현재(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남대 : 홍원희 박진근(이상 민족해방군 사건) 윤차경 유인웅 송옥자 주혜림 서남원(이상 한총련 출범식) 이종명(수배자 편의제공) 정채인(시위주도) 박 응(총학 집

행위원장) 오정상(통일선봉대) 제주대 : 강보라(졸업생, 국보) 조선대 : 엽종재(조계사 농성) 이형삼(법민족대회) 류광왕(인권복지위원장) 최 민(한총련 출범식) 창원대 : 조용병(총학생회장) 표세호(총학 부회장) 청주대 : 안난숙(한총련 의장 편의제공) 충남대 : 전양배(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노희창 정석인 김동혁 이주용(이상 시위관련) 김명환(총학 사무국장) 김동석(총청총련 의장) 충북대 : 신승환(대자보) 김신일(학생복지위원장) 한국해양대 : 정현주(총학 부회장) 한남대 : 고현재(총학 부회장) 한양대 : 김인호(조국통일위원장) 김승원(학자추위원장) 김춘수(동아리연합 부회장) 항공대 : 박종훈 이원표(이상 시위) 호남대 : 이권주 이규태(이상 시위) 김동관(한총련 출범식) 호서대 : 홍승덕(한총련 문화국) 호의대 : 장진익(시위) 김태환(94 부총) 이훈희(조통위장) 원준호(전농동월거반대) 효성카톨릭대 : 김경희(PC 통신에 한총련 글 올림)

### 군인 구속자

김종민(서강대, 95년 서총련문화국) 홍종문(홍익대, 시위관련)

### 노동자 구속자

김재영(역사노, 국보) 이영두(구속노동자회, 국보) 정동근(기노련 의장, 범민련)

이승우(기아자동차, 시위) 이재원(북부노동자회 사무국장) 서현성(북부노동자회 노동자교실학생)

김광호(북부노동자회 노동자교실강사) 장영호(북부노동자회 노동자교실학생)

### 재야 및 기타 구속자

전노련 : 한기홍(전노련 종로) 이상필(전노련 회원) 김병옥(전노련 청년부장) 이만성(전노련 종로) 김태경(전노련 부회장)

전칠연 : 이귀원 정창흠 서원복 소영수 김영재 이영석 김용석 최명동 박기호 김성완 - 고 박순덕 열사 진상규명 투쟁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짐시범 위반 혐의

박동환(범민련 광주) 임경천(영홍도 주민대책위)

## “북한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700-8275(빨리 치료)로 전화하시면 2,000원이 성금으로 적립됩니다.

북녘의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아팠습니다. 북녘 어린이들의 고통은 곧 우리 민족의 상처로 남아

우리와 다음 세대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미래에 있을

민족의 불행을 예방하는 소중한 의약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북한어린이 살리기 의약품지원본부’에서 좋은 활동을 하신다기에 심습니다.

지금 바로 700-8275를 놀라주세요!

참여방법 : ARS전화를 걸어주시면 2,000원이 성금으로 적립됩니다.

전화번호 -(국번없이) 700-8275 (빨리치료)

## 북녘동포 돋기 성금계좌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북녘동포들을 돋고자 하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이 뜨겁습니다.

고통 받는 동포들을 위한 일에 회원들의 끊임없는 정성 바랍니다.

북녘동포 돋기 성금 계좌번호 제일은행 159-10-001411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김태규 10,000원 김강석 30,000원 김호현 서미라 50,000

경희대 열린사회 100,000원 알래스카 NAM, E 25달러

감옥의 양심수들도 정성을 보냈습니다.

박종대(독일 유학생, 서울구치소) 50,000원 신인영(30년째 구금, 대전교도소) 500,000원

###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 소식

● 왕영안 선생님께서 위암증세 악화로 사당의원 301호에 입원중이십니다(599-5212). 최근 복수가 차고 토악질이 잦은 상태입니다. 긴 세월의 감옥안 고통도 이겨내신 그 투지로, 6개월 시한 진단을 받고도 7년을 살아오신 그 투병의지로 부디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 혜명 양로원에 계신 임병호 선생님을 지난 8월 18일 찾아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10월쯤 입원치료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인생에 대한 선생님 나름의 정신적, 물질적 정리를 하시려 했습니다. 고귀한 뜻에 감사드립니다.

● 음성 꽃동네에 계신 유한옥 선생님을 지난 8월 29일 찾아뵈었습니다. 석달만에 찾아뵙게 되어 선생

님은 그동안 많이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87세 노인으로서는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모시고 밖으로 나와 이발을 해드리고, 공기 맑은 물가 나무 그늘에서 준비해 간 음식을 함께 들며 옛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음 내킬 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선생님을 뒤로 하고 오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정규 운영위원이 맛난 음식을 준비하셨고, 이정태 회원이 차를 가지고 가 수고하셨습니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금재성 선생님께서 현기증 증세로 두 번이나 쓰러져지셔서 급하게 사당의원에 입원(8/25) 했다가 8월 30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정성껏 보살펴주신 사당의원 김종구 원장과 간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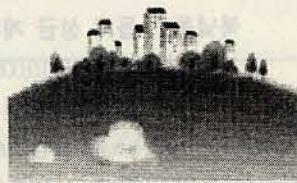
## 회원소식

- 지난 8월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97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둘째날(8/8) 제4회 시민가요제에 수상자 상품으로 이구영 선생님(서예 작품 1점), 박용길 장로님(문익환 시, 박용길 씀 서예작품 1점), 이철수 화백(그림 1점)께서 귀한 작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심수후원회 발족때부터 활동, 운영위원과 부회장을 맡아하셨던 소수영 님께서 어학연수를 위해 중국에 가셨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 오랫동안 옥고를 치루셨고 후원회원이신 송세영 선생님의 아드님 성철님께서 신부 고명희 님을 맞아 여러분의 축복속에 한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훌륭하게 키우시고 고운 며느님을 보시게 된 선생님께 축하드리며, 신랑신부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철, 김희정 회원(경희대 열린사회 모임)이 지난 8월 14일 예쁘고 건강한 딸아이 수민(秀民)이를 낳았답니다. 건강하세요.
- 이현(한양대 여든여덟 모임)회원이 황현숙 님과 혼례를 올립니다. 첫다짐처럼 오래도록 행복하세요. 9월 20일(토) 12시 30분, 향군별관 1층 연리지 예식홀 특실(잠실역에서 3분거리)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등 민가협의 크고 작은 행사의 연출을 맡아주셨던 김정환 님이 강은영 님(가극단 금강 가수)과 혼례를 올립니다. 10월 11일(토) 신궁전 예식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미국 알래스카에 계신 알래스카 NAME 회원께서 사무실로 예쁜 티셔츠 2벌, 수저 1벌, 초코렛과 사탕, 어린이용 겨울신발과 임경옥 회원 아이들에게

보내는 과일값, 전노사면 반대 캠페인 성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수저는 수련회때 상품으로 함세환 선생님께 전달했습니다. 선생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김춘애(강남구 개포동) 박아지(부천시 춘의동) 권용보(관악구 봉천6동) 오형수(강남구 대치동) 최현주(천안시 성황동) 김윤식(마포구 공덕1동) 권경옥(서초구 서초동) 박정옥(성북구 안암동 5가) 김현례(마포구 신공역동) 이미숙(동작구 노량진1동) 남승윤(광명시 철산동) 배재섭(경북 경산시) 장수정(원주시 단계동) 박지윤(강남구 논현동) 범진옥(성북구 성북동1가) 김경호(청주시 사창동)



## 9월 산행

무더운 8월이 다가고 열매 맷는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서서 우리가 거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운 얼굴들과 영봉에 올라 되돌아봅시다.

언제 : 97. 9. 21(일) 오전 10시

어디로 : 북한산(우이동 - 도선사 - 영봉

- 형제바위 - 우이동)

모이는 곳 : 우이동 그린파크 버스 6번 28번, 23번.

준비할 것 : 회비 3,000원, 맛있는 도시락.

#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지요.

바쁜 일상에서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잊고 사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돌아볼 새도 없는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30여년 동안을

꼬박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0.75평 독방에서 더위를 피할 틈도 없이 창살 너머로

가끔 불어오는 더운 바람을 벗삼아 지내야 하는 사람들.

30년이 넘도록 면회한번 하지 못한채

자잘한 세상이야기 한 번 제대로 들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컴퓨터 키보드 하나로

재빠르게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문명의 시대에

불펜 한자루로 그리움을 달랠야 하는 야만의 조건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 40년 동안 녹슬어 있는 빗장은 우리들 양심의 녹슬음 아닐까요.

철은 단단하고 강하나 작은 불씨들이 모이고 모여 끝내는 철을 녹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철문을 녹이게 될 것입니다.

양심수 가족들의 눈물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40년 넘도록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있던 장기수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합니다.
- 20 ~ 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두고 옥밖으로 나온 무연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머물 곳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기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러 형태의 후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서울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 양심수 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
	지로번호	7619407